

중도·중복장애 관련 최근 연구 동향

김영한, 이진옥, 김재현, 박정민, 홍서린, 신예이(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보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접근성, 편의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망 구축하며, 건강장애 등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가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수와 요구에 따라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내용을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하며 이 분야에서의 연구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중도·중복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로 “중도장애”, “중증장애”, “중도·중복” 하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국회도서관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이 발간된 학술지를 확인 후 관련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관련 학술지는 세부장애 영역이 아닌 특수교육 전반에 관련된 학술지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연구,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 재활과학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특수아동교육연구 등 총 6개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총 161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161편의 연구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50.93%로 2010년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전환 관련 연구를 90년대와 2000년 이후 6년 단위로 중도중복관련 주요 키워드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중도중복이 49편(30.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증장애가 30편(18.63%), 중도장애 28편(17.39%), 중복장애 19편(11.80%), 기타 16편(9.94%), 시각중복, 청각중복 각각 6편(3.73%), 중복중증, 시청각중복 각각 1편(0.6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분석을 살펴보면 학문 전체에 대한 기타 분석이 65편(40.37%)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을 명시한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5편(34.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8편(17.39%)로 많았으며 부모를 대상 9편(5.59%),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0.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사, 특수교육 보조원, 활동 보조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분야 별로는 특수교육 분야가 109편(67.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장애 영역에 대한 연구 등 기타 분야가 36편(22.36%), 관련서비스 분야 8편(4.97%), 발달 분야 3편(1.86%), 통합교육 분야 3편(1.86%), 의학 분야 2편(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리학 분야는 연구되지 않았다.

연구유형은 문헌연구, 중재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평가연구, 혼합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문헌연구 62편(38.51%), 중재연구 37편(22.98%), 조사연구 28편(17.39%), 질적연구 22편(13.66%), 평가연구 7편(4.35%), 혼합연구 5편(3.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고 혼합연구 사용빈도는 가장 낮았다. 기간별로 문헌연구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에 비해 질적연구는 최근 많이 진행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증·중복장애학생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161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용용어, 연구대상, 연구분야, 연구유형 측면에서 90년대와 2000년 이후 6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161편의 대상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8년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2009년 이후 조사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용어는 아직도 중도·중복, 중증장애, 중복장애, 중도장애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장애용어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은 학생중심의 연구와 교육과정 분석, 국내외 교육모형 분석 등 기타 대상이 많았으나 치료사나 보조원, 관리자 등 학교 현장의 실무자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영역이 교사차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외부기관이나 학교급에 의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구분야별로는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이었으나 관련서비스와 통합교육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특수교육과 함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또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고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하는 방향이므로 단순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가 아닌 통합교육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문헌연구는 패러다임 및 모형 관련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 조사연구에 그칠 뿐 질적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므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를 질적연구와 결합한 더욱 심도깊은 혼합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학술지 중심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장애학생의 전환 연구경향으로 일반화하거나 국내외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과 다른 특정 장애영역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거나 국내외 해외의 최근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각면의 심층적인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